

동물들이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이유

베른트 하인리히 지음/이경아 옮김/더숲/462쪽/1만8천원

큰뿔부리도요를 비롯해 동물들이 '극한'의 경험까지 감수해가며 어떻게 자신의 삶 터를 조성하고, 또 그곳을 다시 찾아내는지를 탐사한 책이다. 귀소성은 생존과 번식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이동하고, 그렇게 찾아낸 곳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만들고, 떠나갔던 보금자리를 찾아 되돌아오는 능력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문명의 시대에도 찬탄을 자아내는 동물의 귀소 메커니즘에는 인간에게는 부족한 감각 능력과 신경 처리 과정이 포함돼 있다. 책은 보금자리로 돌아오고자 극한 비행을 감수하는 큰뿔부리도요 못지않게, 아비새처럼 보금자리를 지켜내고자 위험도 마다치 않는 동물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현장에서 함께한 투사와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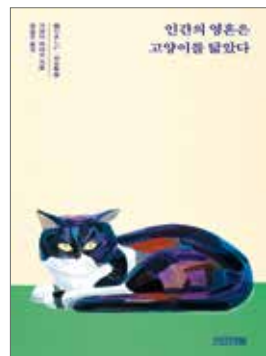
백기완·문정현 지음/오마이북/144쪽/1만5천원

'백발의 거리 투사' '길 위의 신부'. 각각 백기완(84) 통일문제연구소장과 문정현(77) 신부를 가리키는 수식어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노동자·민중과 함께해 온 두 사람의 생각과 삶의 철학을 100편의 글로 엮었다. "우리는 모두 오늘의 역사적 현장에 함께 있나니/오늘의 부패, 그 모순과 딱하니 맞짱을 떠야 하는 거다." (백기완) "빼앗긴 곳이 현장이야/ 고통받는 곳이 현장이야/ 처절한 노동 현장, 세월호 아이들이 있는 곳,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는 곳.../그런 현장에 남고 싶어!" (문정현) 편집진이 2016년 여름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사람과 나눈 대화를 시와 아포리즘의 형식으로 정리했다.

고양이의 눈으로 인간 내면을 엿보다

가와이 하야오 지음/최용우 옮김/사계절/292쪽/1만5천원

일본 임상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1928~2007)에게 고양이는 인간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이다. 그는 "고양이는 영혼과 연관 짓기에 딱 좋은 생명체"라고 말한다. 실제로 고양이는 인간들의 성품만큼이나 다양한 얼굴을 가졌다. 잔혹하고 사나운 쥐 사냥꾼이자 게으름뱅이이며, 여성성과 교활함을 동시에 갖췄다. 저자는 동서양 전설부터 중세·근현대의 소설, 만화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등장하는 개성 만점 고양이들에게서 인간의 이야기를 읽고 인간의 영혼을 엿본다. 영혼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현대인의 여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열쇠이기도 하다. 고양이의 여러 모습을 '영혼의 현현'으로 여기는 저자는 자신의 마음속 고양이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보자고 말한다.

죽음·상실과 맞닥뜨린 소녀들

배수아 지음/문학동네/312쪽/1만3천500원

독특한 작품세계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작가 배수아(52)의 신작 소설이다. 표제작 '뱀과 물'을 비롯해 '눈 속에서 불타기 전 아이는 어떤 꿈을 꾸었나' '얼이에 대해서' '1979' '노인 올라(Noin Ula)에서' '도둑 자매' '기차가 내 위를 지나갈 때' 등 7편이 담겼다. 소설 7편 모두 질서정연한 서사 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며, 이야기의



난해함은 전작들보다 더 심해진 듯도 하다. 그러나 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과 이미지, 문장들은 이 책을 일관적으로 관통하는 그림의 윤곽을 어렵듯이 보여준다. 독자는 어느새 이 낯설고 몽환적인 세계에 빠져든다. 주인공들이 목도한 죽음과 상실은 삶 속에서 실제 일어난 일인지, 꿈속에서 보는 환상인지 혼돈 속에 뒤섞여 있다. 삶과 죽음, 기억의 망각과 성장이 반복되고 뒤엉킨다.

미생물은 공존의 대상

김혜성 지음/파라사이언스/320쪽/1만8천원

치과의사인 저자가 우리 몸 안의 미생물을 파고든 책. 우리 몸에 어떠한 미생물이 살고,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이들의 생태는 어떠한지 다양한 일러스트와 함께 보여준다. 미생물을 향한 편견을 버리고, 박멸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미생물을 대하자고 말하는 책이다. 인간의 몸에는 우리를 이루는 30조 개의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우리 유전자보다 1천 배가 넘는 미생물 유전자가 있다. 몸속 미생물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좀 더 포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며 더욱 긴 생명의 흐름에서 몸과 건강을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율곡이 지향한 인문정신

한정주 지음/다산초당/344쪽/1만6천원

율곡 이이(1536~1584)가 19세에 쓴 글인 '자경문'(自警文)을 바탕으로 율곡이 지향한 인문정신을 고찰한 책. 자경문은 '자신을 경계하는 글'이라는 뜻이다. 역사와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책을 출간해온 저자는 자경문을 율곡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실천적 지침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입지(立志), 치언(治言), 정심(定心), 근독(勤獨), 공부(工夫),



진성(盡誠), 정의(正義) 등 7가지 핵심 주제어를 뽑아 율곡이 어떻게 뜻을 세우고 마음을 다스렸는지 설명한다. 저자는 율곡의 인문정신을 "사람이란 인간의 도리를 배워서 깨닫고 실천하는 데서 나온다"로 요약하고 "어질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질문하고, 성찰하며, 실천해야 하는가를 율곡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한다.